



청곡사



금호지 소망교

월아산~청곡사~금호지, ‘진주의 길’을 걷다

청곡사는 경남 진주시 금산면의 월아산이 품은 절이다. 월아산은 달빛이 산을 타고 왔다고 해서 달 오름산(달음산) 또는 달엄산이라 불리기도 한다. 서부 경남의 명산으로 국사봉(471m)과 장군대봉(482m)이 주봉이다.

청곡사는 해인사나 통도사처럼 규모는 그리 웅장하지 않지만, 천년 고찰답게 국보 302호인 영산회괘불탱화와 보물 제1232호인 목조 제석천·대범천의상, 보물 제1688호인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 다양한 문화재를 품고 있다.

월아산에는 청곡사 외에도 878년(현강왕 4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한 두방사와 성은암이 있으며 동으로는 천룡사, 임진왜란 때 소실된 법륜사지가 있다. 달(月)을 품은 월광(月光)보살이 사는 곳이어서 그런지 곳곳에 불교 흔적이 있다.

청곡사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수차례의 중수를 거쳐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었다가 1602년(선조 35년) 다시 지어졌다.

국보 302호인 영산회괘불탱화는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를 그린 탱화로 길이 10.4m, 폭 6.4m가 주는 위엄과 자비로움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경이로움 그 자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간의 설법 중에서 마지막 편에 해당하는 법화경을 영취산에서 설법하신 것을 묘사한 것이다. 괘불이 걸리는 날 사찰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로 붐볐다.

월아산은 산이 구름을 이루고 있지만, 숲이 아름다운 아담한 산으로

힘하지 않아 가족 단위 등산객들이 주말을 이용해 즐겨 찾는 산이다. 곳곳의 너털지대에 형성된 돌탑이 운치를 더해준다.

월아산은 해돋이가 진주 8경에 들 정도로 유명하다. 월아산 정상에서 보는 해돋이가 아니라 근처 금호지 저수지에서 바라보는 해돋이다. 월아산에서 내려다보면 W자의 큰 못(저수지)이 하나 보이는데 바로 금호지(琴湖池)다. 금산면 용아리에서 국사봉으로 오르는 등산로의 초입이자 국사봉에서 용아리 방향으로 하산할 경우 맨 마지막 여정에 만나는 곳이다.

금호지는 신라시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장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600여m에 달하는 긴 제방에 뽀뽀하게 들어선 고목들이 이를 말해 준다. 이처럼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사시철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는다. 특히 월아산의 두 정상인 장군봉과 국사봉 사이로 떠오르는 일출은 진주 8경에 들어갈 만큼 장관이다.

월아산 등산을 마치고 이곳 금호지 인근에서 시원한 금산 막걸리에 파전을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인근에 메기찜, 붕어탕 등 먹거리도 풍부해 코스와 시간만 잘 맞춘다면 멋진 일정이 될 것이다. ♡



국사봉